Ransom Youth Group News

이번 새학기를 맞이하여 저희 중고등부 (Ransom Youth Group)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Youth Group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담당 집사님으로 봉사해 주신 김성현 장로님이 English Ministry를 맡게 되셨고 새로이 황동준/안은신 두 분의 집사님들이 그 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성현 장로님께서 전도사님이 안 계신 시기를 비롯하여 여러모로 혼신의 힘으로 중고등부를 이끌어 오셨는데, 많은 시간과 열정으로 수고해 주신 김성현 장로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또한 2년째 중고등부를 이끄시는 정한진(John Chung) 전도사, 김다운 전도사 (Pastor Intern) 외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새학기를 맞이하여 야고보서를 공부하며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사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Grade 6: 지민형
Grade 7: 이동윤
Grades 8-10: 장성화, 이영은
Grades 11-12: 김다운
Korean class: 김주영, 고승환
New Teachers: 사공현일, 김조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 안에서도 찬양팀이 새로 결성이 되어 매주일 예배후 연습을 하며, 각종 행사와 예배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간의 친목을 위한 이벤트를 갖으며. 석 달에 한 번씩은 봉사쪽으로 focus 하여 교회 안과 보스톤 안에서 자원 봉사로 섬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PTA를 통하여 여러 행사에 관련된 식사, ride문제, 그리고 follow up 등에 있어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류은섭 집사님(학부형 회장)을 비롯한 각 학년 대표 부모님들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그밖에 2009-2010년 동안 여러 활동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의 Open House 을 열었고, 10월의 picnic, 11월의 Turkey Bowl at Gordon College, 12월의 Lock-In, 2010년 1월의 Ski Trip, 3월의 세례, 견신 축하 잔치, 6월의 Graduation Party, 9월의 가을 수련회 등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CC 건축이 완공되면 주일 예배가 11:00 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중고등부는 11시 부터 12:15까지 예배와 찬양의 시간을 나누며, 12:25 부터 1:10까지는 성경공부 시간을 갖게 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시간을 맞추어 자녀들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현재 주일예배 출석 인원은 40-50여명 이지만 저희가 새로운 건물과 교제로 부흥하기를 기도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인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전체가 교회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셔서 저희 Youth Group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여 주시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이 도와 주십시요.

특히, 교사는 항상 부족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황동준 집사나 정한진 전도사에게 연락 주십시요.

해바라기 소식

계절이 바뀌는 9월… 여름내 부쩍 자란 해바라기들이 모두들 한 학년씩 진급하였습니다.

몸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한 살 더 먹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새 선생님을 만났고 6학년 학생들은 태어나서부터 몸담았던 유년주일학교를 떠나 중고등부로 옮겨가는 뜻깊은 진급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1년 반 동안 4, 5학년을 맡아 주셨던 이은주 선생님께서는 1년 반 동안 공부해 온 주일성경공부 내용을 학생마다 한 권씩 묶어서 주셨습니다. 요절을 외우고, 성경 본문을 찾는데 이젠 선수가 된 우리 6학년 해바라기들이 중고등부에서도 영육간에 날로날로 성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10월에는 건축되는 교육관 피아노를 우리 해바라기들의 힘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10월 10일 해바라기들의 찬양과 연주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실 해바라기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해바라기들에게는 필요한 피아노가 마련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써 준비하고 성심으로 연습하는 해바라기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9월에 박정은, 문강희 선생님께서 주일학교를 섬기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날로 커져가는 해바라기 주일학교는 늘 선생님이 부족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은혜의 공동체인 해바라기 주일학교로 교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섬기며 은혜를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김동규 집사(617-277-2002)에게 연락주십시오.

중앙 4구역 소식

중앙 4구역 식구들께..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저희 가족이 보스턴에 머물면서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시고, 나그네 같은 저희 식구를 불러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심심할 때에 적절히 즐길 거리를 만들어 주신 보스턴 한인교회 중앙 4구역 식구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온 박승배/최미나 가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을 드립니다.(바울서신을 좀 흉내 냈습니다. ^*^)

우리는 지난 7월 14일 보스턴을 출발하여 항공편으로 아이다호 주의 보이시에 도착, 약 1주일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전주 교대와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이 보이시에 있어 그 대학 교수 한 분의 집에 머물면서 엘로스톤 국립공원과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을 3박4일의 일정으로 둘러보기도 하였습니다. -중략 -

우리는 8월 3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8월 4일 밤늦게 집이 있는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튿날부터 시작된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부랴부랴 딸 유진이의 중학교 입학수속을 하였습니다. 아들 종민이도 기존에 다니던 초등학교 4학년에 복학하여 1년 전과 비슷한, 한국의 교육현실에 몸을 맞추는 일상으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진이는 보스턴에서 보냈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언제 다시 보스턴을 방문 할 것인지를 벌써부터 묻곤 합니다....뉴턴에서 보낸 이삿짐이 아직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곳 전주에 도착하여 <매미소리>가 참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보스턴에서 거주하는 동안 매미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주 우리 아파트 주변에서는 매미가 무척 크게 울

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매미는 도대체 얼마나 살까?.... 아들 종민이와 함께 조사를 해 보았더니, 매미는 애벌레로 약 7년을 땅 속에서 지낸 다음, 7년의 마지막 즈음에 탈바꿈을 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매미로서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 생존 기간은 1~2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미란 매미 애벌레가 번식을 하기 위해 극히 잠시 거치는 기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매미는 매미 애벌레가 살아가는 기간의 약 0.003%에 해당하는 극히 짧은 기간만을 더운 여름날 우리 주위를 날아 다니다가 알을 낳은 후에 생을 마감합니다. 이 매미의 일생을 우리 인간의 삶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9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에 우리는 약 30,000년을 기다려 이 땅에 오는 것이더군요. 그러니까 가수 송창식씨의 <우리는>이라는 노래의 노랫말,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매미의 삶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보스턴에서 우리가 만난 인연은, 30,000년을 기다려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기간 동안 맺은, 아주 기적과 같은 소중한 인연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 계속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가족이 보스턴에 머무는 기간 동안 신앙의 울타리를 제공해 주시고, 즐거운 식사 시간도 마련해주시고,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중앙 4구역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장생활은 이곳에서 하지만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 모임은 보스턴 한인교회 여러 장로/집사/교우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틈나는 대로 소식 전하겠습니다.

.... 고국 전주에서 박승배/최미나 드림

부팅없는 컴퓨터 기술 세계 최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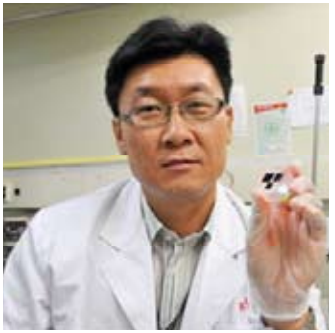
http://kr.blog.yahoo.com/bbss0905/3336

국내 연구진이 컴퓨터를 부팅 없이 바로 실행시킬 수 있게 하는 반도체 원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원(KIST) 장준연(44 • 사진) • 구현철(40) 박사팀은 17일 "그동안 이론만 제시돼 왔던 전자스핀을 이용한 연산처리용 '스핀 트랜지스터 소자'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스핀은 전자가 띠고 있는 자기적(磁氣的) 방향성을 뜻하며 트랜지스터 소자는 반도체 칩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다. 1990년 미국에서 스핀 전자 소자의 이론이 처음 제시된 이후 전자스핀을 이용한 소자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로 주목 받으면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기존 소자는 전자의 음전하만을 이용했으나 이번 연구는 음전하와 함께 스핀까지 이용해 전자 소자를 구동시키는 새로운 기술로 기존 소자보다 초고속 • 초저전력 • 초고집적도의 전자 소자 제작을 가능하게 한다. 장 박사는 "이번에 개발된 소자는 데이터 연산 처리용으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에 이용되며 상용화까지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스핀 트랜지스터 소자'로 만들어진 CPU와 일본 등에서 개발해 5년 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스핀을 이용한 D램 메모리는 하나의 칩에 담을 수 있다. 장 박사는 "D램 메모리와 CPU를 한 칩에 담을 경우 컴퓨터 부팅 과정이 없어지고 바로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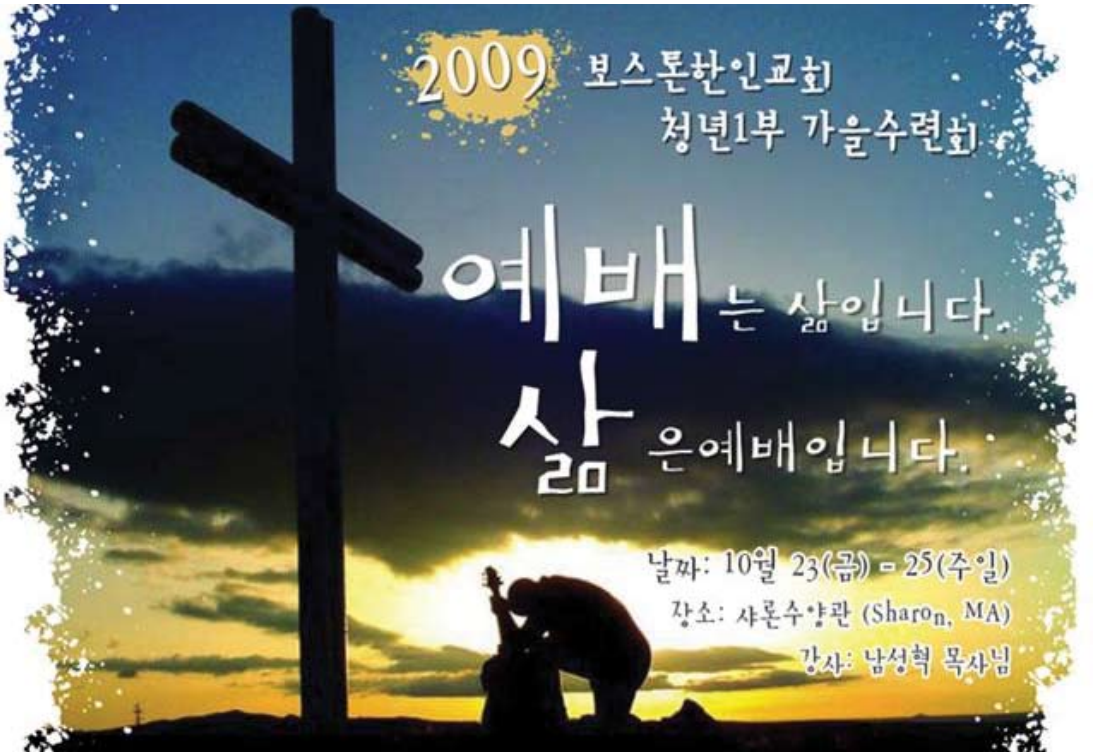


기존 컴퓨터는 D램 메모리와 CPU가 별도로 구성돼 있어 상호 연산을 하면서 작동해 부팅 과정이 필요하다.
(장준연 교수는 현재 중앙 4구역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청년 1부 소식

10/23-25: 가을 수련회를 샤론 수양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강사: 남성혁 목사,
"시대를 이끄는 그리스도 공동체"



청년 2부 소식

저희 그루터기 청년 2부는 9월 20일 주일 2부예배 후 앤더슨 파크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난히 화창하고 아름다웠던 초가을의 날씨 속에서 귀한 말씀을 듣고, 맛있는 바베큐도 나누고, 무엇보다 지난 3개월 동안 청년 2부에 새로 오신 지체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여름 방학 동안 한국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떠나 흩어져 있던 지체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9월은 저희 청년부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는 시기이고 직장인들에게는 긴 여름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기인데 저희 모두가 이번 학기에도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도약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월 4일 주일에는 청년 2부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여질 지체들을 위해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CC 피아노 기금모금 음악회

이번 토요일 (10/10) 저녁 7시부터 ECC교육관 피아노 기금 마련 음악회가 본당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새로 짓는 교육관 2층의 어린이 성전에 들어갈 그랜드 피아노를 NEC에서 사용하던 중고 피아노 경매때 $8,000을 주고 구입 하였습니다.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1부 예배에서 수고하시는 Chamber Orchestra팀원들과 1부 성가대가 중심이 되어서 Mendelssohn piano trio, Brandenburg Concerto No 6 및 여러 한국 가곡 등의 다양한 레파토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이 날의 하이라이트인 아리랑 교성곡에는 교회 유년주일학교 및 중고등부 학생들이 악기와 합창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가을이 무르익는 저녁, 수준급의 연주가들과 자라나는 유망주들이 펼치는 멋진 클래식 음악을 감상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티켓은 $20 (어린이 무료)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교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donation 부탁드립니다.

세계 성찬 주일

매년 10월 첫째 주일은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평화를 위한 신앙적 결단을 다짐하며, 교회 내와 지역, 교단 차원에서의 평화를 이루어 가는 사역들에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됨을 기념하여 이 세계 성찬 주일을 지킵니다.

매년 세계 성찬 주일날 드리는 평화 헌금은 1980년에 시작된 지정 헌금입니다. 미국장로교는 평화를 이루어 가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적 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결단으로 이 평화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인동정

출생

- 8/21– 김성준/이선희 교우댁 득녀(Jane) 하셨습니다.
- 9/10– 류승열/임윤아 교우댁에서 득녀(재영, Priscilla)하셨습니다.

광고

- ECC 피아노 기금모금 음악회가 10월 10일(토)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 교회 소식지 "한울타리"를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사무실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 여성 성경공부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있습니다.
- 우리 교회의 2부 예배 반주자로 수고하고 있는 손민수 교우는 지난 2006년도 캐나다 캘거리에서 있었던 호넌스 국제피아노경연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의 첫 CD는 2008년도에 발매되었고, 이번 리사이틀는 손민수 교우의 카내기홀의 데뷰 연주회 무대가 됩니다.

Minsoo Sohn in recital New York

Weill Recital Hall at Carnegie Hall
Thursday 8 October 2009 8:00 PM

First Laureate, 2006 Honens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사순절 묵상집

2010년도의 사순절 묵상집을 위한 여러분의 귀한 글을 모읍니다.

교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눈 체험속에서 보고 느그끼시는 주님의 사랑, 고난, 위로, 평안 등의 간증의 이야기들을 글로 쓰셔서 많은 교우님들과 사순절의 은혜를 함께 누릴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원고를 홍보위원회로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고 보내실 곳: hanwbae@yahoo.com

새교우 환영반 소식

이영길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교우환영반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신 분들이 한번씩은 하셔야 하는 아주 귀한 모임입니다. 첫째 주는 간단한 자기 소개로 서로를 알리는 시간을, 둘째 주는 "말씀과 함께"라는 교재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그리고 셋째 주 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달에 수료하신 새교우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현정/장선영 교우
Brigham and Women's Hospital에 3년 정도 연구계획을 가지고 오신 고현정/장선영 교우 댁은 2001년 결혼 후 교회에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 보스턴에 도착하신 후 서울에서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우리 교회를 찾아 오시게 되었고, 앞으로의 미국생활 동안 신앙이 더욱 커나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김미숙 교우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는 3년 정도 되셨고 친정은 원래 불교집안이셨습니다. 결혼 후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하셨고 새벽기도를 통해 아이를 갖게 되신 것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계기가 되셨답니다.

성상호/이선영 교우
성상호 교우는 교회를 나오신 지 약 3개월이 넘으셨고 이선영 교우는 기독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두 분 역시 아주 어렵게 기도 속에서 얻으신 따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2부예배 참석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를 하고 싶으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안창혁/이경화 교우
불교집안에서 자라셨던 이경화 교우는 사촌오빠 친구로 만나신 모태신앙 출신(?) 안창혁 교우와 결혼하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셨답니다. 이 곳에 오신지는 한 2달 정도 되셨고 고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며 신앙적 의지가 자라나는 체험을 하셨답니다.

이창범/강효정 교우
천주교 집안의 이창범, 불교 집안의 강효정 교우님. 2003년부터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며 신앙생활을 하셨답니다. 미국오실 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신 우리 교회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기두/석은주 교우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신 정기두 교우의 학업 때문에 세 따님을 데리고 이 곳 오셨고 세례 받고 결혼 후 신앙이 성장함을 느껴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 미국생활에도 감사하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피대훈/김선미 교우
한달 정도 우리 교회에 나오신 이 두 분은 김선미 교우의 연수차 보스턴에 오셨고 한국에서 소아과를 개업하고 계신 피대훈 교우께서는 열심히 외조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처음 미국 생활이 낯설지만 가족 모두 알차게 생활하고 싶어하십니다.

새교우 환영반 수료후 함께하는 환영파티에서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역대 가장 많은 인원수가 참가하여 즐거운 대화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 넓고 그림같은 집에 초대해 주시고 손수 기르신 채소, 과일로 저희들을 배불리 먹여주신 김계숙 권사님, 김문소 장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KCB 갤러리 - 나누고 싶은 모습들

• 제직 안수/임직 예배

• 제직 안수/임직 예배

• 동북 대회 여선교회 연합 선교회

• 동북 대회 여선교회 연합 선교회

• 남순일 교우 세례식

• 니카라과 단기 선교

• ECC 건축 현황 (Holden St. 쪽)

• ECC 건축 현황 (Harvard St. 쪽)